

대구주보

연중 제17주일

2015.7.26.(나해) 제1954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자크 티소, 「오병이어의 기적」(1886).
캔버스에 유채, 브록클린 박물관, 미국 뉴욕.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주셨다.” (요한 6,1-15 참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아마 그 어린이의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작은 봉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한 조각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은 희생이라도 주님께서 강복하시면 무수한 사람을 살리는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입니다.

제1독서 2열왕 4,42-44

제2독서 에페 4,1-6

복음 요한 6,1-15.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박병래 안토니오 신부 | 사동본당 주임

예수님처럼 연민의 정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고통에 아주 민감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루카 복음을 보면 병자 치유 이야기와 구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귀를 쫓아내시고, 심한 열로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데려온 많은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인대장의 노예, 과부의 외아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려 주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쳐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지니신 연민의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오천 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좀 쉬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연민을 필요로 하는 군중들이 밀어 닥칩니다. 남자만도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희망을 갈구하며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 쇠사슬같이 엮인 권력에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배를 훑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배고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 아픈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찾아온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또한 그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시고 허기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배가 고프는 참 비참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굶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쌀 두 되박을 싸들고 그 집에 갔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린 그 집 엄마는 그 귀한 쌀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집과 똑같이 굶고 있는 앞 집 이슬람 가족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께서서는 예수님처럼 먹을 것을 주었고, 그 엄마도 예수님처럼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 굶주림, 눈물에 예수님처럼 보고 듣고 민첩하게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 3:12**



믿음의 길

성모님과 곡예사

정혜옥 데레사 | 계산본당

오래 전, 아나톨 프랑스의 단편을 읽었다. 바아나비라는 곡예사가 있었다. 요술과 광대놀음을 하며 거리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가난했고 햇빛이 없는 겨울이 되면 곡예를 할 수 없어 자주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마음이 착한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며 성모님을 공경하였다.

어느 저녁, 곳은 비 때문에 곡예를 못한 바아나비는 요술 도구들을 담요에 말아 팔에 끼고 “오늘은 돈벌이를 못했기 때문에 저녁을 굶어야겠구나.” 하며 힘없이 걸어갔다. 그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신부님을 만났다. “신부님, 저는 요술쟁이 곡예사입니다. 언제나 성모님에게 찬송과 기도를 바치며 살고 계시는 신부님이 부럽습니다.”하였다. 남루한 곡예사를 측은하게 생각하신 신부님이 그를 성당으로 데리고 갔다. 성당에서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성모님을 섬기고 있었다. 신부님은 성모님의 대한 책을 쓰고 화가는 성모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칭송하고 조각가는 대리석을 망치로 쪼아 성모님의 자태를 만들기도 했다. 시인은 성모님에 대한 시를 짓고 음악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모님에게 바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요술과 광대놀음 밖에 할 줄 모르는 곡예사는 성모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그는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혼자 성당을 배회하기도 하고 흐느껴 울기도 하였다.

어느 아침, 잠을 깬 곡예사가 급하게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 밖으로 나온 그의 이마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이런 날이 계속되었다. 그때부터 곡예사의 얼굴에는 슬픔대신 웃음이 가득하였다. 수상하게 생각하신 신부님이 곡예사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곡예사가 성당 안으로 또 사라졌다. 신부님이 성당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바아나비가 성모님 앞에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며 혼자 곡예를 하고 있었다. 신부님은 “거룩한 성당에서 곡예를 하다니”하며 그를 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때 성모상이 움직이더니 사뿐사뿐 곡예사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셨다.

이 글을 읽은 후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가난하고 외로운 바아나비, 곡예를 하는 것 밖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바아나비, 성모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만을 지니고 있는 바아나비. 문득 곡예사의 겸손함과 순박함, 온전한 사랑과 신뢰, 이런 것에 성모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음을, 신앙의 길은 대단한 업적이나 큰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다시 성모상을 우러러 본다. 언제나 서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모님, 아름다운 성모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병든 이와 간헐있는 이와 마음의 고통에 억눌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서서 기도하시는 성모님, 언제쯤이면 우리도 곡예사 바아나비와 같은 사랑을 바칠 수 있을까. 허약한 우리의 신앙이 오월의 꽃향기처럼 피어날 수 있을까. **필문**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권정임 베로니카 | 카리타스 무지개사업단

카리타스 무지개사업단은 2013년 설립되어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중국 등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20명이 봉제작업장과 더치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봉틀 3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병원관련 제품(환자복) 생산과 의류 제품 그리고 주문자 맞춤 생상품도 제작하는 등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2년차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는 결혼이민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정적 생활 적응 및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와 공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다문화 특성과 결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역할을 제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카리타스 무지개사업단의 직원들은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힘을 얻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목적과 더불어 다문화공동체의 역할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음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이 서툰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로부터 한글을 배워 점점 능숙하게 대화가 가능해지고, 표정도 밝아지는 모습으

로 한국 생활을 즐겁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이나 평일에 성당에 가서 더치커피를 팔기도 합니다. 많이 는 아니지만 우리 커피에 맛을 느끼신 단골들이 생겨 배달하러 나갈 때의 기분은 더 큰 즐거움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받기만 하는 공동체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나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등을 가르치며 문화교류의 소통을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일요일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소가 열리기도 합니다.

아직은 가톨릭의 울타리 안에 속해있지 않는 직원들이 있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함께 바치는 기도문,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처럼 훗날 그들도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희 카리타스 무지개사업단을 위해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1:1 멘토링을 해 주실 수 있는 멘토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카리타스 무지개사업단, (053)621-2025~6

변화의 본질

한 시골마을에 남들처럼 튼튼해지고 싶어 하는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 힘들어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 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그 바위를 매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는 수고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위의 위치를 측량해 보니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비웃었고 8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바로 그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게 다 하느님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었는데 보십시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나는 네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저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지. 이제 거울에 비친 네 모습을 보거라.”

그는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골로**

금주의 성인

7월 26일	성 바르톨로메아(설립자, 1807~1833년), 성녀 안나(성모 마리아의 모친, 1세기) 성 에라스토(바오로의 제자, 주교, 필립피), 성 요아킴(성모 마리아의 부친, 1세기)
7월 27일	성녀 나탈리아(순교자, 코르도바, 852년), 성녀 릴리오사(순교자, 코르도바, 852년) 성 아우렐리오(순교자, 코르도바, 852년), 성 에클레시오(주교, 라벤나, 532년) 성 첼리스트노 1세(교황, 432년), 성 판탈레온(의사, 순교자, 305년경)
7월 28일	성 나자리오(순교자, 68년경), 성 삼손(수도원장, 주교, 485~565년) 성 인노첸시오 1세(교황, 증거자, 417년), 성 빅토르 1세(교황, 순교자, 199년)
7월 29일	성녀 루칠라(동정순교자, 260년), 성녀 마르타(신약인물, 동정녀, 베타니아, 1세기경) 성 올라보(왕, 순교자, 노르웨이, 995~1030년), 성녀 플로라(동정순교자, 260년) 성녀 베아트릭스(순교자, 304년), 성 파우스티노(증거자, 스페인, 4세기)
7월 30일	성녀 막시마(순교자, 304년), 성녀 올리타(과부, 순교자, 카이사레아, 303년경) 성 센넌(순교자, 303년), 성 압돈(순교자, 303년), 복자 만네스(신부, 1230년경)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대주교, 교회학자, 라벤나, 380~450년)
7월 31일	성녀 헬레나(과부, 스코프네, 1145~1160년), 성 이냐시오(신부, 설립자, 로올라, 1491~1556년) 성 제르마노(주교, 오세르, 378~448년), 성 칼리메리오(주교, 순교자, 밀라노, 190년)
8월 1일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모리(설립자, 주교, 교회학자, 1696~1787년) 성녀 피데스(순교자, 2세기), 성녀 카리타스(순교자, 2세기)

■ 대구가톨릭대병원 축복식 및 비전선포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7월 16일(목) 오후 5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의과대학 연구동 축복식을 거행하시고,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셨다.

■ 월막 성령봉사회 성전 봉헌식



대주교님께서는 7월 19일(일) 오후 3시 월막 피정의집 내 성령봉사회 성당에서 성전 봉헌미사를 집전하셨다. 또한 미사 후 성당 외벽 성모상을 축성하시고 기념식수에 시삽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30주간, 2015. 7. 26~8.1.>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집회43-46장	47-48장	49-51장	이사1-2장	3-5장	6-9장	10-12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예언서』

- ‘예언’이란 : 하느님께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에게 현재적 관점에 집중하여 당신 자신, 곧 말씀을 맡겨 주시는 것.
- 예언의 핵심 :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 죄란 ‘하느님 없이 사는 삶’ 혹은 ‘자신이 하느님이 되는 삶’이었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죄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죄로서 하느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구체적이고 살아 있는 계약관계를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방심하지 말고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28일(화) 11:30 계산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8월 1일(토) 11:00 대안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7월 대구 후원회미사가 없습니다.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8월 1일(토)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원하는 시간에

장소: 원하는 장소에서

문의: 조대운 신부, (010)3777-4688

8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8.15(토)~16(일)

주제: 외딴 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토) 신부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8.1(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셋별

내용: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587-7300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8.7(금) 18:00~9(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새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요나와 함께하는 침묵 피정

기간: 8.14(금)~16(일), 부산 수녀원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010)9319-1690

제주 자연 피정

기간: 8.12~15(수~토) / 17~20(월~목)

8.31~9.3(월~목) / 9.5~8(토~화)

9.13~16(일~수) / 10.2~5(금~월)

문의: 성이시돌피정센터, (02)773-1455

평창 성필립보 생태마을 여름 가족 피정

일자: 8.13, 17, 19, 21 (1박 2일)

주제: 지구 온난화 / 대상: 가족단위

비용: 6만 원(4식)

문의: (033)333-8066

<http://www.생태마을.org>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평화,

성지순례, 올레길, 오르트레킹, 역사탐방

기간: 8.20~22 / 8.29~31 / 9.7~9

9.17~19 / 10.1~3 / 10.11~13

문의: (02)773-1463

교육 | 모집

빛 떼제기도 초대

일시: 8.8(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내용: 식사, 떼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056-9005

홍성남 신부님의 힐링 크루즈 순례

기간: 9.29(화)~10.12(월) 13박 14일

장소: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그리스

경비: 내측 498만 원, 오션부

538만 원, 발코니 568만 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대구시립희망원 치과진료 봉사자 모집

일시: 월~금요일 중 가능한 시간

대상: 치과 의사, 치위생사

내용: 희망원 생활인 치료 및 보철진료

문의: 631-5985 / (010)3810-9859

인천교구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과

함께있는 264세대 실버타운

성당, 헬스장, 사우나, 물리치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천마산 등산로 조성

위치: 인천 서구, 문의: (032)280-1500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대구은행: 504-10-137072-9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경일신경과·내과

대표전화 053) 652-2525

2호선 내당역 2번 출구 (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 치매 / 뇌졸중 상담 268-2525
- M R I 역약 262-2525
- 위/대장 내시경, 성인병 종합검진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참조중환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피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부산부인과

이애현(크리스티나)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여성성형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박의현 구심내과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행사 | 모임

발달장애자와 가족을 위한 월미사

일시: 8.2(일) 16:00

장소: 성 토마스 성당

대상: 발달장애자, 가족, 관심 있으신 분

바느의 성모기도회 월례미사

일시: 7.30(목) 14:00

장소: 삼덕성당

내용: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2015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기간: 8.4(화)~9(일)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8, 9, 10전시실

주관: 대구가톨릭미술가회

교육 | 모집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프로그램 연수

기간: 8.10~31(매주 월) 4주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신청: 8.2(일)까지

비용: 3만 원

문의: 교구 노인담당, 250-3077

제36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학교

기간: 8.17(월)~21(금) 14: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수강료: 3만 원 (교재비 포함)

마감: 8.11(화) 17:00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2대리구 가정위원장 가정위원 교육

일시: 8.23(일) 14:00~17:00

장소: 2대리구청 강당

대상: 각 본당 가정위원장, 가정위원

신청: 팩스 250-3112

주관: 교구 가정담당, 250-3114

YHY청소년센터 여름방학 특강

생활컬트, 생태환경, 요술풍선, 창의미술, 밴드, 바리스타, 일본어, 영화학교

기간: 여름방학(8월)

대상: 초·중·고등학생

신청: 교구 청소년국, 657-9220

가톨릭근로자회관 8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8.3(월) / 월 3만 원

기초: 창세기(월 10:10), 마르코(수 10:10)

중급: 1코린토, 민수기(화, 금 10:10)

저녁: 민수기, 1코린토(화, 목 19:10)

문의: (010)6506-3303, 관덕정 목 10:00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야간반(30명): 개강 9.12~종강 12.12

시간: 월, 수, 금 18:30 / 토 13:00

대상: 65세 미만 / 학력, 남녀 제한 무

특전: 교육비 국비지원(식비, 차비지원)

문의: 대가대장례지도사교육원, 555-4404

채용 |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입양 상담 및 미혼모 상담 (국내입양전문)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대구평화방송(FM 93.1)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대구대교구 원로 사목자와 원로 수도자의 삶을 나누는 휴먼 다큐 '임파라 사랑파라'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 ~ 12시

(주파수 안내: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김천 100.5MHz)

8월 1일(토)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현익현(바르톨로메오) 수도 사제

8월 8일(토), 15일(토), 22일(토), 29일(토)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서경윤(알베르트) 수도 사제

※ 특집 프로그램은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 후원입니다.

교구에서 운영하는 『데레사소비센타』는 수성구 황금동 소재 한 곳뿐입니다. 다른 장소에 있는 『데레사농수축소비센타』는 개인 소유로서 교구와는 무관합니다.

성모님발현 성지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12박 13일)

출발일: 9월 2일 (출발확정)

T. (053)253-3399

조 철 (유스티노) 흠 비 회 (안젤라)

상담카페 공감 OPEN!

상담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학교(성)폭력상담, 아동청소년심리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노인상담, 학습·진로코칭

뇌훈련 프로그램(뉴로피드백훈련), 바우처제공기관

대표 이 호 숙 (율리아나) jikimdng.net

T. 745-1388, 755-2235

황금1동 신천지하이츠 상가 2층

로마스교육연구소

학교폭력예방상담지원센터

31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랑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8-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행복의료기

(행복메디칼)

가정용 의료기, 체온계, 마스크

혈압계, 혈당계, 건강측정기기, 실버용품

병원용품 도·소매, 건강기능식품

대표 이 희 자(루시아)

☎ 053)626-0072

내당네거리 진성두류타운 뒤편(시내배송가능)

하나 염색약

전문점/취급점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허가제품

(주)한아코스메틱

053)741-7912 | 010-3526-6539

대표 전 영 자(마리아)

발아플덴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Car Body Make-up

차량의 몸체에 화장을 입히자

차량광고 전문업체 · 1급정비사업체

CBM 대동정비

차량광고도색, 차량랩핑, 실사출력

학원차량전문, 기업차량도색 및 랩핑

특수도장 대형 열처리 부스 3기 보유

www.dgcar.co.kr 황 용 호(루치아노)

☎053)963-4794 010-5913-8417